

타이거살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감상을 전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의 유혹:
영화 <완벽한 거짓말>

누군가는 그렇다. 타인의 것을 내 것처럼 훔치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변명한다. 사실 누구도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나만의 어법으로 창조해야 하는 일은 고 통스러운 일이다. 사실 자신의 재능의 한계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타인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유혹을 느낀다고 모두 훔치는 것은 아니다.

안 고졸런 감독의 영화 <완벽한 거짓말 (A perfect Man)>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글을 훔친 소설가 지망생의 욕심이 만든 파국을 보여주는 영화다. 생계를 위해 청소 회사에서 일하는 소설가 지망생 마티유는 완성된 소설을 출판사에 보내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어느 날 죽은 노인의 집을 청소하다 낡은 수첩을 발견한다. 알제리 참전 병사의 길고 자세한 일기다. 이야기에 매료된 마티유는 일기 속 이야기를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여 발표한다.

책은 큰 성공을 거둔다. 언제나 그에게 냉정하던 세상이 친절해진다. 하지만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마티유의 거짓말은 점점 더 자라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마티유는 거짓말로 얻은 성공의 맛에 이미 도취되었다. 그러니 자꾸 뒷걸음질 치는 과거로, 매일 더 낮은 곳으로 저물어가는 인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안 고졸런 감독은 진짜와 가짜 사이의 가치와 그 가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해답 대신 계속 물음표를 걸어 놓는다.

사실 창작자에게 창의성 없는 욕망은 독이다. 그 독은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해친다. 실제로 유명 화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화가들은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욕심에 그림의 옷 주름이나 눈동자 등에 슬그머니 자기 이니셜을 적

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작은 흔적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 가짜로 판명된다. 위조품 안에 창작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처럼 보이지만, 끝내 버리지 못한 양심의 한 조각을 남겨둔 것은 아닌지도 싶다.

모작을 하는 미술작가는 남의 작품을 똑같이 그려 이익을 얻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표절 작가는 남의 것을 훔쳐 자신의 이름을 얻는다. 몇 해 전 공모에 출품된 작품을 심사위원이 표절한 적이 있다. 중견작가의 표절 문제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고, 타인의 사생활을 누취하여 만들어진 소설을 출판사에서 수거 후 폐기한 사건도 있었다. 학력 위조, 논문의 대필, 표절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창작의 영역에서건 연구의 영역에서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표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전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관련 학자나 작가들이 논란에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침묵의 카르텔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본인의 가장 싱싱한 시간을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새로운 예술 작품과 연구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여전히 타인의 아이디어를, 문장을, 혹은 영혼까지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요행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였노라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빗장을 열어 그 사람을 카르텔 밖으로 내던지지 않는다. 그래도 딱 한 사람은 알고 있다. 완벽한 거짓말이건 그것보다 더 단단한 결속에 의한 것이건 끝까지 속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남기 때문이다.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신 말이다.

최재훈 영화평론가

고대인의 시선(詩選)

시(詩)에 대한 감상을 담아냅니다.

불면

-이창운

백지 속으로
잠이 달아나고 있다

잘게 부서져 쌓이는 마음
더듬어도 걸리지 않는 생각

내가 쓰는 아픔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밤

이유도 없는 텅 빈속을 들여다보며
뒤척이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어둠에
머리를 기댄다

불면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병이다. 많은 이들이 공부하느라, 젊음을 즐기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나를 무너지게 하는 슬픔과 싸우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낸다. 어느덧 잘 자는 것, 제시간에 자는 것은 누군가에겐 지키고 싶지만 너무도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화자 역시 잠들지 못하며 걱정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다. 아픔을 써보고 생각을 해보려 해도 계속해서 뒤척이고만 있다. 만일 생각이 잘 정리되고 내가 누구인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해결된다면 쉽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화자는 서술한다.

나 역시 고민이 많을수록 잠을 맞이하기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 나는 가족 모두가 잠든 밤, 혼자 잠들지 못하고 늦은 밤을 지새우곤 했다. 티비와 전등이 꺼지고 선풍기 소리만이 고요하게 공기를 가르는 곳에 감지 못하는 눈을 뜨고 있을땐, 일찍 잠들지 못하는 나쁜 어린이를 향해 할아버지가 잡아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 나의 작은 눈망울이 더욱 말뚱해지곤 했다.

중학생이 되고도, 성인이 되고도 원하는 시간에 잠드는 일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나를 뒤덮은 견고한 어둠과 걱정, 공포를 조그마한 라디오 소리에 의지하며 서서히 잠이 찾아오길 기도했다. 그 기도가 통하지 않는 밤은 이불 속을 뒤척이다, 하

고 싶지 않았던 생각들이 결국 나를 휘몰아쳐 내일 하루를 그르치기 일쑤였다. 천천히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는 누구인지 고민한 채 눈을 감아보며 마음을 편히 해보지만, 달아나는 잠을 잡아두는 건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잠은 죽음의 모조품”이라는 말을 접한 적이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편히 잠들기를 원한다. 간혹 죽음은 두렵지만, 모조된 죽음을 잔뜩히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가끔은 괴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모조된 죽음을 잘 맞이하며 아픔이 나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밤이 지나고 잠들면 오늘의 우리는 죽고 내일 새로 태어나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죽음과 태어남 사이에서는 행복한 꿈을 꾸기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오기도 한다.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 없는 죽음은 가장 행복한 죽음이듯, 고통 없이 모조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역시 가장 행복한 모조된 죽음일 것이다. 오늘 밤도 육신을 침대에 기대며, 가장 편하고 행복한 가짜 죽음을 맞이하길 기도한다.

정해원(정경대 통계18)

아랑줄띠 - @ 정릉 '지하서재'

'아랑줄띠'는 알아두면 좋을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그저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그래서일까. 가끔 별 이유 없이 무작정 북카페나 도서관, 서점을 찾곤 한다. 이런 편안함이 간절한 날, 정릉동의 '지하서재'에서 책과 술에 잔뜩 취해 보는 건 어떨까.

보문역에서 우이신설행 열차를 타고 세정거장 이동하면 북한산보국문역에 도착한다. 1번 출구로 나와 새마을금고에서 한번 꺾어 5분 걸으면, 주택가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네온사인인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가 있는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서부터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을 마주한다. 버지니아 울프와 데이비드 보위

의 그림이 걸린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 테이블이 5개 놓인 아늑한 공간이 나온다. 어두운 분위기에 테이블마다 놓인 노란색 조명이 마치 호그와트 도서관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책장 사이에 벽을 보고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다. 함께 간 친구와 하이볼과 생맥주를 한 잔씩, 안주로는 오븐 나초를 시키고는 마음껏 감탄을 시작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6권, 7권, 표지에 숫자가 적힌 공책들이 눈에 띈다. 지하서재에 머무르는 모두가 작성할 수 있는 방명록이다. 자리에 놓인 방명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 적혀 있다. 어지럽게 수놓인 글과 그림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또다

른 책으로 자리한다. 지난 방명록들을 하나하나 펼쳐 읽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와 고민들을 엿본다.

한참 책장을 살펴보다 결국 바로 옆에 꽂힌 최창균 시인의 <백년 자작나무 숲에 살자>를 뽑아 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소리를 들으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맥주잔이 비고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면, 펜을 들어 방명록 한 페이지에 아쉬움 가득한 흔적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하서재'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방명록이라던 누군가의 글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쩌면 이 서재의 주인공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이가림 기자 forest@

KUDiary 9월 2주차 학사일정 안내

교내 학술·문화 행사 및 각종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보: press@kunews.ac.kr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문의
9월 5일 ~ 9월 7일 10:00~17:00 (온라인) 9월 13일 ~ 9월 16일, 9월 20일 ~ 9월 23일 (오프라인)	2022 하반기 채용박람회	학생처 경력개발센터	고려대학교 학생처 경력개발센터 tigeru5@korea.ac.kr

일시	모집명	내용	문의
8월 28일 10:00 ~ 9월 30일 10:00	9월 기업면접 대비를 위한 모의 PT/토론 면접	전문 훈련을 이수한 커리어코치가 진행하는 모의 PT/토론면접	경력개발센터 tigeru5@korea.ac.kr
9월 1일 ~ 9월 12일	LTE 언어교환 프로그램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인 학생이 팀을 이뤄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	글로벌서비스센터 gsc@korea.ac.kr
~ 9월 19일	CAD, CAE 교육 프로그램	CAD, CAE 소프트웨어 교육을 원하는 누구나	KU-3DS 운영지원팀 ku3ds@korea.ac.kr

일시	모집명	문의
9월 1일 10:00 ~ 9월 23일 17:00	2022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학사팀
9월 7일 18:30 ~ 9월 8일 12:00	2022년 2학기 수강신청 전체 정정기간	학사팀
9월 19일 10:00 ~ 9월 21일 17:00	2023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사팀
9월 1일 ~ 11월 30일 17:00	2022학년도 2학기 학기중 휴학 안내	학사팀

ZOOZOO총회

고대인과 함께 하는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오색빛깔 사랑앵무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세 마리의 사랑앵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부부 앵무새인 푸름이, 아름이 그리고 딸 앵무새인 흰둥이를 소개할게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친구는 배가 하늘처럼 온통 푸르른 수컷 앵무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푸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였던 푸름이를 보시자 외롭겠다며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주자고 하셨어요. 다음날 푸름이와 저희는 분양소를 함께 찾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난 암컷과의 앵무새 소개팅에서 푸름이는 상

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만난 바나나처럼 길쭉하고 노란 앵무새와는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좋아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름다운 노랑 앵무새가 바로 아름이랍니다.

3주 뒤, 두 마리의 새끼 사랑앵무가 태어났어요. 두 마리 모두 어여쁜 암컷이었는데 색깔은 완전히 달라서 무척 신기했죠! 초록색 앵무새는 상추, 흰색 앵무새는 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모이 먹을 시간도 없이 새끼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 잉꼬들을 보니 저는 제 부모님께

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었어요.

행복한 잉꼬 네 식구가 함께하던 와중에 슬프게도 상추는 하늘나라로 훨훨 가버렸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흰둥이는 새끼 시절에 횡대에서 떨어진 후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해요.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흰둥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 바깥 산책을 자주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피곤한 하루를 끝마치고 집에 와서 보드라운 앵무새 친구들을 쓰다듬으면 포근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무척 행복하답니다!

노재연(생명대 생명과학19)